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결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 '탄력'

진안군, 3195억원 확보... 지역현안사업 추진 동력 마련

진안군은 28일 2024년도 국가예산으로 총사업비 3,19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액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를 위한 용역비 및 각종 현안의 신속한 해결과 군 미래발전 위한 든든한 밑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신규 사업 확보 규모는 △농림·축산 분야 9개 사업, 150억원, △지역개발 분야 5개 사업, 356억원, △환경·산림 분야 등 8개 사업, 2,689억원 등이다.

신규 주요사업은 보훈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39억원),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166억원), △갈거자

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137억원), △좌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16억원), △반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1억원) 등이다.

특히 군은 대규모 국가사업인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권 산지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사업 연구 용역비 4억원을 산림청 예산에 반영시키며 전액 국비사업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내년도 주요 계속사업은 2024년 개관을 앞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89억원), △황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24억원), △계곡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23억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10억원) 등이 2024년도 국비로 확보됐다.

이번 성과는 그간 긴축재정으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출성 군수를 필두로 중앙부처 단계에서부터 국화단계까지 정치권 공조 등을 통하여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건의해온 결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 단계에서 진안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며 노력한 결과 △서부권 등산학교 건립사업(100억원, 공모진행)을 추가로 증액·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전출성 군수는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진안군의 대도약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촌인력증가센터 농림부 공모사업 4개소 선정

진안군은 2024년도 농촌인력증가센터 농림부 공모에 응모한 결과 4개소(백운농협, 부귀농협, 부귀농협, 부귀농협)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영농작기(파종기, 수확기 등)에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전문적으로 내국인 인력을 증대할 수 있는 농촌인력증가센터 4개소가 선정된 것은 농가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다가왔다.

진안군은 2023년도 농림부 공모에서 2개소(백운농협과 부귀농협)를 선정, 전북형 공모에 2개소(진안농협, 부귀농협)가 선정되며 적기 내국인 농업인력증가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한 바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 4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3억2000만원(국비 50%)의 예산을 확보하고 개소당 8천만원을 지원해 수박, 고추, 토마토, 시설하우스 등 농업 분야에 필요한 내국인 인력을 증대하여 부족한 농촌 일손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림부 공모에 선정된 농촌일손지원센터 4개소 중 백운농협 증가센터는 백운·마령·성수 지역을 중개하고 부귀농협영농조합법인, 부귀농협을 중개, 부귀농협은 정천·부귀·진안읍 일부를, 진안농협에서는 진안읍·용담·안천·상전·주천·동향면 등을 관할해 지역 내에 일손부족 현상을 조급이어나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인력증가센터는 농업 분야 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내국인 인력을 알선 증대하는 사업으로 센터 운영비, 현장교육 실습비, 교통 운송비, 숙박비, 영농작업반장수당 등을 지원해 농업분야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서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농업근로의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4개의 농촌인력증가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농업인력이 없어서 영농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1988억원 확보...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등 추진

장수군이 2024년도 국가예산으로 총사업비 1,9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4년도에 확보한 국가 예산 사업은 신규사업 30건 1,206억원과 공모사업 23건 782억원이다.

군은 주요 확보사업으로 신규사업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196억원)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331억원) △계남 유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80억원) △백두대간 밀목재 생태축 복원사업(58억원) △산서면 실내체육관 건립사업(40억원) 등이고, 공모사업은 △장계면 소재지권 LPG배관사업(127억원) △산재생애너지융합지원사업(36

억원) △장계면 도시재생 공모사업(242억원) 등을 확보했다.

올해 정부 긴축재정 기조 등 나라안팎 사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군은 연초부터 최후의 군수를 필두로 수시로 중앙부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사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안호영 의원과 공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을 수차례 찾아 사업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 3년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서화합 육십령 가

야이음터 조성사업이 이번 국회단계에서 최종 반영돼 전북 동부권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최후의 군수는 "올 한해 장수군청 직원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해 지역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인 S등급(144억원) 확보라는 큰 성과와 더불어 장수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현안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장수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 5억원 초과 달성

31일까지 '장수사랑 고향사랑 기부인증 이벤트 1+1+' 진행

장수군이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목표액 5억원(지난 12월 23일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군은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지역의 각종 행사에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리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각종 향우회와 지역 동문 등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손길을 보내 줌으로써 목표액을 초

과 달성했다.

최후의 군수는 "장수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주신 기부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모아주시 기부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청소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장수군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군은 연말을 맞아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10만원 이상 장수군에 기부하는 국민에게 추첨을 통해 장수군 답례품으로 구성된 홍보 볼품 증합



세트(사과정과, 식초, 도라지청, 홍삼정 스틱, 꿀 스틱 등)를 지급하는 '장수사랑 고향사랑 기부인증 이벤트 1+1+'을 진행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영원한 마음의 고향 무주를 응원합니다"

제33대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 이임식 개최

제33대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사진가 1년 2개월 여에 걸친 임기를 마치고 전북 도청으로 복귀한다)를 이임식 28일 무주군민의 집 2층 대강당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각 실·과·소·읍·면장을 비롯한 무주군 공무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이 개최됐다.

행사는 꽃다발과 재직기념패, 공로패 전달을 시작으로 직원들과의 악수례,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연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에 더해 부군수님과 헤어지는 아쉬움까지 나눠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무주다운 무주 실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부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덕분에 무주가 코로나 19 여파를 잘 극복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추진을 비롯한 2024 자 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 준비 등 현안 사업 실행에 속도를 내며 내실을 기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유호연 부군수는 "무주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태권도, 반딧불이라는 보물을 품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상태지만 군청 조직 자체가 젊다는 데서, 뭐든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희망을 본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들고 남보다 뛰어난 것을 더 월등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오랜 것들을 발전시켜 특화된 경쟁력으로 만드는 창의력이 우리 무주에는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연 부군수는 그동안 좋은 파트너로서 무주군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걸 큰 보람으로 느끼며 언제나 무주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에 공직에 입문한 유호연 부군수는 전북도청 성과관리과 경영평가 팀장, 감사관실 회계감사·감사총괄 팀장 등을 거쳐 어린이친화체 협관장을 지냈으며 농업 분야(농업정책과장)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왔다. 무주군에는 2022년 10월 21일에 부임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에 매진해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관광자원 홍보 언론사 팸투어 진행

무주군은 28일부터 이틀간 전라북도관광마케팅지원센터와 함께 20여 개 언론사 발행인과 기자 등 22명을 대상으로 무주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팸투어는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앞두고 무주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참여 언론인들은 무주 두문마을의 '인성낙화놀이'와 와인카페 '술고지', '덕유산 향적봉', '지전마을 돌담길' 등을 둘러보며 무주군의 테마 별 관광자원을 체험·취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8일 무주를 둘러본 이들은 "무주군의 관광자원들을 체험 중심으로 속속들이 보면서 '무주다움이 주는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무주방문의 해를 통해 무주가 가진 다양하고 흥미로운 자연과 환경, 인문 자원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소방서, 전기차 충전 화재예방 적극 홍보

무주소방서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률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률은 1.8%이며, 최근 2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전기차 비중만큼 그에 따른 화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4건, 2023년 상반기 4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중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충·방전 시에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열폭주 현상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 시 안전수칙으로는 △불기가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 사용 △급속충전 시 80% 이하로 충전 △충전소 주변 절대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